

경상남도교육청
공공언어
바로 쓰기



한글은 우수한 글자입니다.

세계적 석학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풀리처상 수상작인 『총, 균, 쇠』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문자”라며 한글의 우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유네스코는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훈민정음(해례본)』을 세계 기록 유산의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글의 위치는 어떤가요?

때론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어질 정도로 무의미하게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한국어와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합성한다거나 신조어, 줄임말을 쓰는 일도 많습니다. 이는 특정 세대를 배제하고 세대 간 소통을 방해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역민, 학부모(보호자), 학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쉽고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경상국립대 국어 문화원과 함께 ‘경상남도교육청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교육청 공공언어 바로 쓰기』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를 계기로 쉽고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 고자 합니다. 경남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등 교육 가족 여러분께서 보도 자료, 공고문 등 공문서를 작성할 때 이 책자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신 승 욱**



목차

1. 공공언어 이해하기

- 공공언어란? 8
- 공공언어 종류와 요건 8
- 좋은 공공언어란? 10

2. 한국어 어문규범 돌보기

- 한글 맞춤법 14
- 표준어 규정 14
- 외래어 표기법 15
- 로마자 표기법 15

3. 공공언어 기초 쌓기

- 문장 부호 18
- 띄어쓰기 22
- 명사 나열식 표현 23
- 지나치게 격식적 표현 24
- 권위적·차별적 표현 24
- 피동형 문장 25
-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한자어 26
- 외국어 사용 27
- 친절하게 쓰기 28
- 어휘 혼동하지 않기 29

4. 공공언어 유형별 작성법

- 기안문 32
- 보도 자료 36
- 공고문 38

5. 공공언어 돌보기

- 일본어 투 용어 48
- 번역 투 표현 51
- 한문 투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53

6. 부록

- 필수 개선 행정 용어 100개 56
- 제1회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행정 용어 심의 결과 60
- 도움받을 곳 62





1

공공언어 이해하기

- 공공언어란?
- 공공언어 종류와 요건
- 좋은 공공언어란?

1 공공언어 이해하기

공공언어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공성을 띤 언어

- 좁은 의미: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
- 넓은 의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

공공언어 종류

생산 주체	대상	종류	
		문어	구어
국가 공공기관	국민	정부 문서, 민원서류 양식, 보도 자료, 법령, 판결문, 계시문, 안내문, 설명문, 홍보문 등	정책 브리핑, 대국민 담화, 전화 안내 등
민간단체 민간기업 공인		(신문, 인터넷 등의)기사문, 은행·보험·증권 등의 약관, 해설서, 사용 설명서, 홍보 포스터, 광고문, 거리 간판, 현수막, 공연물 대본, 자막 등	방송 언어, 약관이나 사용 설명 안내, 공연물의 대사 등
국가 공공기관	국가 공공기관	내부 문건, 보고서 등	국정 보고, 국회 답변 등

공공언어 요건

영역	요소	항목
정확성	표기의 정확성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였는가?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하였는가?
	표현의 정확성	어휘를 적합하게 선택하였는가?
		문장을 문법에 맞게 표현하였는가?
		단락 구성을 짜임새 있게 하였는가?
소통성	공공성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차별적 표현(성, 지역, 인종, 장애 등)을 삼갔는가?
	정보성	정보를 적절한 형식으로 제시하였는가?
		정보의 양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정보의 배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용이성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출처: 국립국어원, 『개정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공공언어 관련 법과 제도

● 국어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① 교육감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공공언어를 올바르게 쉽게 써야 하는 이유

● 국민과 원활한 의사소통 도모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 사업 등을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쓴다면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어렵고 낯선 한자어, 공무원에게 익숙한 행정 용어, 외래어, 전문 용어, 외국어가 쓰여 있는 공문서는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고 특정 계층을 소외시킬 수도 있다.

1)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국민과 지역민이 잘 알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기본 요건이다. 올바르고 쉬운 공공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비단 국민, 지역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 언어생활의 모범

공공언어는 국민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주므로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차별적 표현을 피하고 어문규범을 무시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한다.

● 경제적 손실 예방

2021년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의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효과 조사 연구’에 따르면 민원 서식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개선하면 연간 약 195억 원, 정책 용어를 개선하면 연간 753억 원, 약관 및 계약서류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개선하면 연간 약 791억 원의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공공언어란

●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공문서, 보도 자료 등의 목적을 잘 드러내고 관련 내용을 쉽게 전달해야 한다. 특정 분야의 사람만이 아는 전문 용어, 관공서에서 주로 쓰는 단어는 지양하고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쓴다.

● 어문규범 준수

공공언어는 곧 그 기관의 신뢰성과 연결된다.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을 따른다.

● 한글 우선

공공언어는 넓은 의미에서 일반 대상을 사용하는 모든 언어다. 한글은 우리나라 국민이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 기 때문에 외국 문자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특정 국민을 소외시키는 것과 같다.

●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자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상투적이고 권위적인 표현은 되도록 피한다.


돌보기
경남교육청 국어책임관(24명)·국어담당자(109명) 현황

소속	국어책임관/국어담당자 수	소속	국어책임관/국어담당자 수
경상남도교육청	1명/21명	고성교육지원청	1명/2명
창원교육지원청	1명/10명	남해교육지원청	1명/2명
진주교육지원청	1명/5명	하동교육지원청	1명/2명
통영교육지원청	1명/3명	산청교육지원청	1명/2명
사천교육지원청	1명/3명	함양교육지원청	1명/2명
김해교육지원청	1명/7명	거창교육지원청	1명/2명
밀양교육지원청	1명/3명	합천교육지원청	1명/2명
거제교육지원청	1명/4명	교육연수원	1명/5명
양산교육지원청	1명/5명	교육연수정보원	1명/5명
의령교육지원청	1명/2명	창원도서관	1명/3명
함안교육지원청	1명/2명	마산도서관	1명/2명
창녕교육지원청	1명/2명	김해도서관	1명/3명

(2022년 9월 기준)

※ 경남교육청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본청(1곳), 교육지원청(18곳)뿐만 아니라 2022년 7월부터 직속 기관(5곳)에 국어책임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또한 국어책임관의 업무를 돕고 실질적인 업무 전달 체계를 마련하고자 각 기관의 부서 내에 국어담당자(총 109명)를 신규 지정했다.(직속 기관 15곳 중 나머지 10곳은 기관별 국어담당자 1명을 신규 지정했다)

②

한국어 어문규범 돌보기

-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 외래어 표기법
- 로마자 표기법

2

한국어 어문규범 돌보기

어문규범은 언어생활에서 따르고 지켜야 할 공식적인 기준이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아우르는 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문규범을 고시하고 이를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kornorms.korean.go.kr>)에 공개했다.



한글 맞춤법

한글로써 우리말을 표기하는 법을 체계화한 규정이다. 호시는 훈민정음이라고 할 수 있고,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본으로 1988년 1월 문교부가 고시하였다. 현행 맞춤법은 2017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것이다.



오류 내용	오류 수정	참고
조리교	조리 급식 학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학교를 의미하는 ‘교’가 명사나 접미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
100교	100개 학교	
전문가로서	전문가로서	‘로서’는 지위나 신분, 자격을 나타냄
적용년도	적용 연도	적용년도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낱말이 아니므로 ‘적용 연도’로 띄어 표기함 ‘연도/년도’에서 ‘연/년’은 낱말의 처음절이므로 ‘두음법칙’에 따라 ‘연’으로 표기



표준어 규정

표준어 사정의 원칙과 표준 발음법을 체계화한 규정이다. 1936년에 조선어 학회에서 사정하여 공표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크게 보완하고 합리화하여 1988년 1월에 문교부가 고시하였으며, 현행 규정은 2017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것이다.



오류 내용	오류 수정	오류 내용	오류 수정
강남콩	강낭콩	강총강총	강총강총
삭월세	사글세	부주	부조(扶助)
삼춘	삼촌	첫둑	첫돌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현행 표기법은 2017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것이다.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로 예를 들어 버스, 컴퓨터, 피아노 등을 말한다.

 오류 내용	오류 수정	오류 내용	오류 수정
케익	케이크	리더쉽	리더십
플랭카드	플래카드	캘리그래피	캘리그래피
카다로그	카탈로그	워크샵	워크숍

로마자 표기법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 현행 표기법은 2014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로마자²⁾는 라틴어를 적는 데 쓰이는 음소 문자를 뜻한다.

 오류 내용	오류 수정	오류 내용	오류 수정
Kyongsangnam-do (경상남도)	Gyeongsangnam-do	Mt. Muhak (무학산)	Muhaksan
Yonghodong (용호동)	Yongho-dong	Gim Min Ji (김민지)	Gim Minji, Gim Min-ji

2) 'a, b, c ...'을 흔히 영문자라 부른다. 그러나 이 글자는 독일어·프랑스어·에스파냐어·이탈리아어 등의 글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애초에 이 문자를 만든 쪽을 따서 '로마자'라고 한다.('잘못된 영어식 로마자 적기', 김세중, 2002. 7. 22. 『한겨레』)



3

공공언어 기초 쌓기

- 문장 부호
- 띄어쓰기
- 명사 나열식 표현
- 지나치게 격식적 표현
- 권위적·차별적 표현
- 피동형 문장
- 어려운 한자어 · 일본식 한자어
- 외국어 사용
- 친절하게 쓰기
- 어휘 혼동하지 않기

3

공공언어 기초 쓰기



문장 부호

연월일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 월, 일을 표시할 때 마침표(.)를 찍는다. 마침표가 연, 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 2022. 2. 11.

예) 2022. 2. 11.(금)

- 연월일 사이에는 띄어 써야 한다.

예) 2022.√2.√11.

- 물결표(~)를 쓸 때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쓴다.

예) 2022.√1.√1.~2022.√2.√11.

예) 2022.√1.√1.(토)~2022.√2.√11.(금)

- ‘-부’가 그 날짜에 효력이 발생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이면 앞말이랑 붙인다. 날짜를 나타내는 명사인 ‘자’는 앞말과 띄어 쓴다.

예) 2022.√6.√2.부로

예) 2022.√6.√2.√자로

예) 3월 15일√자 신문. 오늘√자 신문에 뭐 특별한 거라도 났어?

- 월, 일을 표기할 때 ‘0’은 표기하지 않는다.

예) 2022. 01. 07. → 2022. 1. 7.

쌍점

- 쌍점은 앞말에 붙여 쓰고 뒷말과 띄어 쓴다.

예) 일시:√2022. 2. 11.(금)

예) 지참물:√신분증

- 시간을 표기할 때 앞뒤의 숫자를 모두 붙여 쓴다.

예) 일시:√2022.√2.√11.(금)√10:00

○ 홑낫표(「 」)

④ 법률, 규정,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소제목 등을 나타낼 때 홑낫표를 쓴다.

※ 홑낫표 외에도 홑화살괄호(< >), 작은따옴표(‘ ’)를 쓸 수 있지만 홑낫표로 통일한다.

예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예 통영 출신 전혁림(1916~2010) 화백의 대표작 「통영향」(2005)이다.

○ 겹낫표(『 』)

④ 책 제목,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쓴다.

※ 겹낫표 외에도 겹화살괄호(<< >>), 큰따옴표(“ ”)를 쓸 수 있지만 겹낫표로 통일한다.

예 박경리는 해방 이후 『김약국의 딸들』, 『토지』 등을 저술한 소설가다.

예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 큰따옴표(“ ”)

④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쓴다.

예 ○○○ 교육감은 “경남의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가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화음처럼 더불어 빛나는 그날인, 창단 첫 연주회를 꿈꿨다. 애써주신 단원과 구암·소계 지역민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 작은따옴표(‘ ’)

④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쓴다.

예 그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들어 보셨죠?”라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④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

예 나는 ‘이번엔 꼭 당첨되고야 말겠어.’라고 생각하였다.

④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드러낼 때 쓴다.

예 도내 시군 마을교사 대표 50여 명이 25일 경상남도교육청 공감홀에서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협의회 발기 총회’를 열었다.

가운뎃점(·)

- 열거한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

예 민지·민수, 찬미·찬호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

- 짝(각각의 어구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음)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쓴다.

예 경남·경북 두 도를 합하여 경상도라고 한다.

예 김 주무관은 회의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했다.

※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다.

예 김 주무관은 회의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했다.

-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쓴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서 공통 성분은 ‘메달’이므로 ‘금·은·동메달’로 쓸 수 있다.

예 상·중·하위권

예 이번 학력 평가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가운뎃점 대신 쉼표를 쓸 수 있다.

예 이번 학력 평가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예 시·도의원

예 영·정조 시대 → 영조·정조 시대

※ 단, 가운뎃점은 같은 말을 생략하려고 쓰는 것은 아니다.

예 국내·외 → 국내외

예 중·고생 → 중고생

예 시·군 → 시군

※ 사전에 등재되어 한 단어로 굳어진 말에는 가운뎃점이나 쉼표를 쓰지 않는다.

쉼표(,)

- 같은 자격의 어구(단어, 구, 절)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

예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예 경남교육청 교육지원청에는 창원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통영교육지원청 등이 있다.

불임표(-)

- 차례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열거할 때 각 어구 사이에 쓴다.

예 우리말 어순은 주어 - 목적어 - 서술어가 기본이다.

숫자

▶ ‘천 원’ 단위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숫자 표현(만 단위)으로 쓴다.

예 1조✓2345억✓6789만✓1234원

예 1억✓2500만✓2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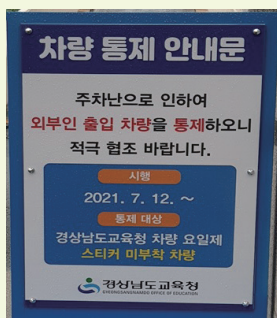
※ 공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오류 내용	오류 수정	참고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법률 규정은 홑낫표(「」)를 씀
과학 경남	「과학경남」	책 제목이나 신문 이름은 겹낫표(「」)를 씀
제출 방법 :	제출 방법:	쌍점(:)은 앞말로 붙여 씀
제 40조	제40조	제40 조(원칙), 제40조(허용)
2020. 5. 28	2020.✓5.✓28.	마침표는 연, 월, 일을 대신함
2019. 10월 말	2019년 10월 말	문장 부호와 의존 명사 중 하나로 통일함
유·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가운뎃점은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임
공·사립	공사립	공사립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임
타 시·도	타 시도	시도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임



돌보기 공공언어 다시 쓰기



차량 통제 안내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인의 차량을 통제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2021. 7. 12.부터

띄어쓰기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예 꽃은커녕, 대궐만큼 크다.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예 아는 것이 힘이다, 세 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예 차 한 대, 집 한 채, 열 살, 삼학년, 제1실습실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전문 용어를 확인하려면 국어사전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어사전에 모든 전문 용어를 실을 수는 없으므로, 국어사전에 실린 전문 용어와 유사한 전문 용어는 등재된 말에 준해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오류 내용	오류 수정	오류 내용	오류 수정
만3세	만 [✓] 3세	기한내	기한 [✓] 내
33일 간	33일간	1월중	1월 [✓] 중
8월말	8월 [✓] 말	500만원	500만 [✓] 원
서식5	서식 [✓] 5	시간당	시간 [✓] 당
접수번호	접수 [✓] 번호	알려드립니다(허용)	알려 [✓] 드립니다(원칙)
주40시간	주 [✓] 40시간	2020.1.31.(금) 이나	2020. [✓] 1. [✓] 31.(금)이나
만60세	만 [✓] 60세	서식1)/서식3	서식 [✓] 1)/서식 [✓] 3



길잡이 사전 이용법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한다.
- 단어를 검색할 때 띄어쓰기 없이 단어를 붙여서 검색한다.
- 예를 들어 ‘우리나라’라고 검색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한 단어다. ‘새기분’이라고 검색했는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고 나오면 두 단어이므로 ‘새✓기분’으로 띄어 쓴다.

사전에 쓰인 기호의 의미

- (붙임표): 띄어 쓰면 안 된다.
예 학교-생활: 학교생활(○), 학교✓생활(×)
- ^ (삿갓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붙여 써도 된다)
예 교육^과정, 사회^복지사
- → (오른쪽 화살표): 잘못된 표현으로 오른쪽 화살표와 같이 바꿔 써야 한다.
예 강충-강충 → 강충강충
- ≍, = (등호): 뜻이 비슷하거나 같다.
예 이쁘다 = 예쁘다
예 교육^과정 ≍ 교과 과정, 커리큘럼.



명사 나열식 표현

- 명사 혹은 명사형 표현을 나열하면 문장이 매우 부자연스럽다. 조사, 어미, ‘~하다’ 등 생략된 문법적인 요소들을 추가해 준다.

기존 쓰던 말	다듬은 말
계약서 작성시 해당 학교 제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
부패유발 제도·관행의 시정 건의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와 관행을 시정할 것을 건의
자기 계발 기회 보장을 위한 학습 여건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하려면 학습 여건 등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
신속 대응을 위해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극 이용 바람	적극적으로 이용 바람



지나치게 격식적인 표현

- 어미 ‘-오-’는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높이는 겸양 표현이지만 일상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존 쓰던 말	다듬은 말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하고자 하오니	지정하고자 하니
공개모집하오니	공개 모집하니



권위적·차별적 표현

- ‘~자(者)’는 딱딱하고 위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바꾼다.
- ‘~것’ 또한 명령이나 시킴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야 한다(함)’ 또는 ‘~기 바랍니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성별, 지역, 장애, 인종, 민족 등과 관련된 차별적 표현은 지양한다.
-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기존 쓰던 말	다듬은 말	보기
~자(者)	~사람	이수한 자 ➡ 이수한 사람
~것	~함/~바랍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어야 함 주의 바람 ➡ 주의하기 바랍니다
소외 계층	삭제/취약 계층	소외 계층은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음
탈북자/새터민	북한이탈주민	1997년에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쓰임
조선족	중국 동포	다른 나라에 아예 정착하여 그 나라 국민으로 사는 이들을 동포, 교포라 부름
미망인	고(故) ○○○씨의 부인	미망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미처 그러지 못하고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을 뜻함
장애우(友)/ 장애자(者)	장애인	장애우라는 단어는 타인이 장애인을 가리켜 부를 때 가능하지만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을 지칭할 수 없음

기존 쓰던 말	다듬은 말	보기
정상인	비장애인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 아님
미혼모(未婚母)	비혼모(非婚母)	미혼모는 결혼해야만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음
결손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결손(缺損)은 어느 부분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불완전하다는 뜻의 가치 편향적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학부형(學父兄)	학부모(學父母), 보호자	학부형은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가족 중 '남자'로 한정하고 있음



돌보기 '요린이', '주린이'

아동 비하 표현에 관한 의견표명

- '요린이', '주린이' 등의 표현,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차별 조장할 수 있어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27일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아동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중략)
- 여러 분야에서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또한 이와 같은 표현이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출처: 2022. 5. 3. 국가인권위원회 보도 자료)



피동형 문장

- 불필요한 피동 표현은 문장의 의미를 불분명하게 하고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 다소 무책임한 문장을 만들기도 한다.
- 기관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때는 능동형을 쓰는 것이 의미가 더 잘 전달된다.

기존 쓰던 말	다듬은 말	참고
원본 서명된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	원본에 서명한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	'원본 서명'은 사진을 제출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원본에 서명하는 행위
선발이 취소됩니다	선발을 취소합니다	'선발 취소'는 공고문을 쓴 기관이 주체적으로 하는 행위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한자어 피하기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문서는 문서를 쓰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의 관점에서 쓰는 게 좋다.
-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표현, 토박이말로 바꾼다.

기존 쓰던 말	다듬은 말	보기
성명	이름	
연령	나이	
별첨/첨부	붙임/따로 붙임	심사 의견 첨부 ➔ 심사 의견 붙임
익일	다음날	
서면으로	문서로	
일체	모두(또는 생략)	서류 일체를 1개의 파일로 제출 ➔ 모든 서류를 1개 파일로 제출
기타사항	그 밖의 사항	
의거하다	~에 따르다	제13조 2항에 의거 ➔ 제13조 2항에 따라
소정의	정해진	소정 양식 ➔ 정해진 양식
본	이/해당/우리	본 심사 ➔ 이 심사 본 체험원 ➔ 우리 체험원
필(畢)하다	마치다	병역을 필하고 ➔ 병역을 마치고
시(時)	~할 때	심사시까지 ➔ 심사할 때까지
미(未)	~하지 않으면	미 참가할 경우 ➔ 참가하지 않으면
불(不)	~지 못하다/~지 않다	불이행시 ➔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에 한(限)하여	~에 한정하여/~만	합격자에 한하여 ➔ 합격자에 한정하여
득(得)	얻다/받다	허가를 득한 ➔ 허가를 받은
하(下)	~하는	입회하에 실시 ➔ 입회하여 진행
공고/공고하다	알림/알리다	정기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 알립니다
제(諸)	여러/모든/각종	제 수당 ➔ 여러 수당/각종 수당

기존 쓰던 말	다듬은 말	보기
인편(人便)	직접	인편 제출 → 직접 제출
매(枚)	장	1매 → 1장
소인(消印)	날짜 도장	우편소인이 찍힌 →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인(捺印)하다	도장을 찍다	인감을 날인하다 → 인감도장을 찍다
기(期)하다	~게 하다/~히	신중을 기하시기 → 신중하게
-처(處)	-곳/장소	제출처 → 제출 장소
기	이미/앞서	기 제시된 → 앞서 제시된
상기	위	상기 일정 → 위 일정
당해	해당/그	당해 중학교 → 해당 중학교
착오	잘못	기재착오 → 잘못 써 넣다
사전	미리	사전 통지 예정 → 미리 알릴 예정
차순위자	다음 순위자	

외국어 사용

기존 쓰던 말	다듬은 말	기존 쓰던 말	다듬은 말
이메일	전자우편	CCTV	폐쇄 회로 텔레비전
다운로드하여	내려받아	세트	벌/한 벌
홈페이지	누리집	메이커 스페이스	열린 제작실
pdf 파일	피디에프(pdf) 문서	USB	유에스비(USB)
워크숍	공동 연수회/연수회	팸플릿	소책자/작은 책자
체험부스	체험관	제로 에너지	에너지 자급/에너지 자급 자족
파일	문서	2pcs	2벌
인력풀(pool)	인력망	풀오버	통옷
슬로건	구호/표어/강령	업종코드	업종 부호
컨설팅	조언/상담/자문	오리엔테이션	예비 교육



친절하게 쓰기

- 줄임말과 전문 용어는 최소화하고 쉬운 어휘를 선택한다. 관행적으로 쓰인 줄임말 표현은 원활한 소통을 방해한다.
- 공문서를 쓰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문서를 보는 국민, 민원인의 처지를 염두에 두고 단어를 선택한다.

기존 쓰던 말	다듬은 말
공모	공개 모집
접수 방법	신청 방법
공모 방법	응모 방법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응시 자격	신청 자격
접수처	신청 장소
우편 접수	우편 신청
해당 부서	담당 부서
현임교	현재 근무하는 학교
건명	안전명
등기 제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함



길잡이 신청과 접수 뭐가 다를까?

신청을 써야 할 곳에 접수를 쓰는 경우가 있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 **신청**: (국민, 민원인 등이) 단체나 기관에 어떠한 일이나 물건을 알려 청구함
- **접수**: (기관이)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口頭)나 문서로 받음

접수는 공고문을 작성한 기관에서 하며, 응시자는 서류를 제출한다.

예 원서는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 누리집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 지원자들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 누리집에서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어휘 혼동하지 않기

기존 쓰던 말	다듬은 말	보기
탑재	올리다/게시하다	...에 탑재된 질의답변 사항 및 각종 양식을 참조 ➡ ...에 올린 질문 답변 사항 및 각종 양식... 탑재는 '배, 비행기, 차 따위에 물건을 실음'이다.
일체	부정문일 때 일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일체는 명사로 쓰이면 '모든 것, 전부'를 의미하고 부사로 쓰이면 '모든 것을 다'를 의미하므로 부정문과는 호응하지 않는다.
(으)로써	(으)로서	전산 관련 유자격자로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이해가 높은 자 ➡ 전산 관련 자격자로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이해가 높은 사람 '(으)로써'는 자격의 의미로 '(으)로서'는 수단의 의미로 사용한다.
난이도	난도	난도는 어려움의 정도를, 이도는 쉬움의 정도를 뜻한다. 이번 수능 난이도가 너무 높았다 ➡ 이번 수능 난도가 너무 높았다 난이도(難易度)는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과반수	반수	과반수를 넘다 ➡ 과반수를 획득하다 명부에 서명 날인해야 함(과반수 이상 참석 확인) ➡ 명부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함(반수 이상 참석 확인) 과반수는 절반이 넘는 수, 반수는 전체의 절반이 되는 수를 의미한다.


길잡이 중복 표현

방학기간중에는
영업 시간을 단축해서
새벽 1시까지 합니다.



방학은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일, 또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다.
기간이라는 말에는 '어느 때부터 다른 어느 때까지의 동안'이라는 뜻이 담겼다.
그러므로 방학 기간은 군더더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4

공공언어 유형별 작성법

- 기안문
- 보도 자료
- 공고문

4

공공언어 유형별 작성법



기안문

- 특정 안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결재로 성립되는 문서.
- 감수 예시(1)

수정 전



제목 20XX년 8월호 소식지 배부 협조

1. 관련: 20XX. 8월호 소식지 발행 계획(○○-1234, 20XX. 6. 24.)
2. 우리교육청 소식지의 2022년 8월호 배부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지원청

① 및 해당 기관에서는 ② 배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간행물명: 20XX년 8월호

나. 발 간 일: 20XX. 8. 1.(월)

다. 배 송 일: 20XX. 7. 29.(금) *지역에 따라 배송일이 1~3일 소요

라. 배부방법

1)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기관(학교)별 배부기준을 참고하여 신속 배부 및 민원인 대상 자율배부

2) 종합홍보기관: 기관을 이용하는 ③ 도민 대상 자율 배부

3. 20XX년 8월호는 ○○교육청 ④ 홈페이지에 ⑤ e-Book 및 ⑥ PDF파일로 ⑦ 탑재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전 교직원에게 홍보하여 ○○교육 소식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탑재 경로: ○○ 교육청 홈페이지 ▶ ○○ 홍보관 ▶ ○○ 교육소식지

※ 발간일 및 배송일정은 ⑧ 제반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붙임 20XX년 8월호 배부처 ⑨ 세부내역 1부. 끝.

○ 수정 후

**제목** 20XX년 8월✓호 소식지 배부 협조

1. 관련: 20XX. 8월✓호 소식지 발행 계획(○○-1234, 20XX. 6. 24.)
2. 우리✓교육청 소식지의 2022년 8월✓호 배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지원청
- ① 과 해당 기관에서는 ② 배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간행물명: 20XX년 8월✓호

나. 발간일: 20XX. 8. 1.(월)

다. 배송일: 20XX. 7. 29.(금) *지역에 따라 배송일이 1~3일 소요

라. 배부✓방법

- 1)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기관(학교)별 배부✓기준을 참고하여 신속 배부 및 민원인 대상 자율✓배부
- 2) 종합✓홍보✓기관: 기관을 이용하는 도민③ 에게 자율적으로 배부
3. 20XX년 8월✓호는 ○○ ④~⑦ 누리집에 전자책, 피디에프(PDF) 문서로 올릴 예정이니 전 교직원에게 홍보하여 ○○교육 소식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 게시 경로: ○○ 교육청 누리집 ▶ ○○ 홍보관 ▶ ○○ 교육소식지

※ 발간일 및 배송✓일정은 ⑧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0XX년 8월✓호 배부처 ⑨ 세부 내용 1부. 끝.

① 및 → 와, 과

‘및’은 부사로서 ‘그리고’, ‘그 밖의’, ‘또’라는 뜻이다. 둘 중 하나만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어학자 이수열(1928~2021)은 “‘및’은 한문에서 이음말로 쓰는 ‘미칠 급(及)’의 뜻 ‘미치다’의 줄기 ‘미치’를 억지로 줄여놓은 꼴”이라고 말했다. ‘및’ 대신 ‘와’, ‘과’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②~③ 명사를 나열하기보다는 조사나 어미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문장이 훨씬 자연스러워진다.

④~⑥ 홈페이지 → 누리집, e-Book → 전자책, PDF파일 → 피디에프(PDF) 문서

「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글을 우선으로 쓰며 외국 글자는 괄호 안에만 쓴다. 또 외국 문자를 쉬운 말로 바꾸어 한글로 적는다.

⑦ 탑재하다 → 올리다, 게시하다

탑재는 ‘배, 비행기, 차 따위에 물건을 실음’이라는 뜻이므로 ‘올리다’, ‘게시하다’로 바꾸어 쓴다.

⑧ 제반(諸般)은 ‘여러, 여러 가지, 모든’으로 다듬어 쓴다.

⑨ 세부 내역 → 세부 내용

내역(內譯)은 ‘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내용’을 뜻하는 말이므로 여기서는 ‘내용’으로 고쳐 쓴다. 한편 내역은 ‘명세’로 다듬어 쓰고 내역서 역시 ‘명세서’로 표기한다.

● 감수 예시(2)

● 수정 전



제목 교직원용 단말기 보안 강화 안내

1. 관련

가. ① 교육부 ○○○과-○○○○(20XX. 7. 27.)“교원용 단말기 보안 안내”

나. 『○○○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1조(단말기 보안)

2. 최근 타시도 학교에서 교직원용 단말기(PC, 노트북 등) 보안 관리 미흡으로 ② 인하여 시험지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말기 보안 강화 방안을 ③ 안내하오니, 전 기관(학교)에서는 단말기 관리에 철저를 ④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직원용 단말기(PC, 노트북 등) 보안 강화 방안

- ○○○ 및 ○○○ 암호를 설정 후 정기적으로 변경 관리
- ○○가 ○○에 ○○되지 않도록 관리
- 일정시간 단말기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
- ○○○○○○·○○○○○○○○(○○○○○○) 설치 및 주기적 실행, 취약점 개선
- 백신·OS·한글 등 소프트웨어 최신 ⑤ 업데이트 유지
- ○○, ○○○○ 및 ○○○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 설치·사용 금지 등

⑥ 끝.

“이 공문은 ○○교육청에서 전 기관(학교)에 일괄 발송하였음”

수정 후

**제목** 교직원용 단말기 보안 강화 안내

1. 관련

가. ❶ 교육부 ○○과-○○○○(20XX. 7. 27., “교원용 단말기 보안 안내”)

나. 「○○○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1조(단말기 보안)

2. 최근 타 ✓ 시도 학교에서 교직원용 단말기(PC, 노트북 등) 보안 관리 ❷ 미흡으로 시험지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말기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❸ 안내하니, 전 기관(학교)에서는 ❹ 단말기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직원용 단말기(PC, 노트북 등) 보안 강화 방안

- ○○○ 및 ○○○ 암호를 설정 후 정기적으로 변경 관리
- ○○가 ○○에 ○○되지 않도록 관리
- 일정시간 단말기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
- ○○○○○○·○○○○○○○○(○○○○○○) 설치 및 주기적 실행, 취약점 개선
- 백신·OS·한글 등 소프트웨어 ❺ 최신판으로 갱신
- ○○, ○○○○ 및 ○○○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 설치·사용 금지 등

❻ ✓✓ 끝.

“이 공문은 ○○교육청에서 전 기관(학교)에 일괄 발송하였음”

- ① 관련되는 다른 공문서를 표시할 때 문서생산기관의 명칭과 생산등록번호를 적고, 괄호 안에 생산날짜와 제목을 표기한다. <예시> ○○부 ○○○과-123(2021. 12. 21., “○○ 행사 관련 협조 요청”)
- ② ‘인(因)하다’는 어떤 사실로 말미암다, 당연한 결과로 어떤 일에 이어지거나 뒤를 따르다라는 뜻이다. ‘~ 때문에’, ‘~로 말미암아’로 바꾸거나 아예 없앤다.
- ③ 안내하오니 ➡ 안내하니
어미 ‘-오-’는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높이는 겸손한 표현이다. 하지만 일상 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예스러운 표현이니 보도 자료, 공고문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스러운 표현은 현대 국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휘로 ‘-옵소서’, ‘-사옵나이다’, ‘인즉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④ 한자어는 우리말로 대체한다. ‘기(기약할 기·期)하다’는 (1)기일을 정하여 어떠한 행동이나 일의 계기로 삼다, (2)이루어지도록 노력하다를 뜻한다. (1)과 같이 쓰일 때는 ‘~부터’(새벽 4시에 기해 ➡ 새벽 4시부터), (2)와 같이 쓰일 때는 ‘힘쓰다’, ‘꾀하다’, ‘다하다’, ‘기울이다’(만전을 기하다 ➡ 운힘을 다하다, 최선을 다하다) 바꿔 쓰는 게 좋다.
- ⑤ 업데이트 ➡ 갱신
외국어는 우리말로 대체한다.
- ⑥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

보고 자료

-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특정한 정책이나 사업 내용을 언론 매체에서 쉽게 보도할 수 있도록 정리한 문서와 시청각 매체를 의미한다. 보고 자료의 1차 수신자는 기자이지만 보고 자료를 작성한 공공기관의 누리집에서도 공개가 되므로 정확하고 올바르게 작성해야 한다.
- 감수 예시(1)

수정 전



① (제목) 네 정보 역량을 Zoom in 해봐!

② (부제) 20XX. ○○ e페스티벌 개최

○○○은 ○○ 학생의 정보화능력 ③ 신장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건전한 여가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6월 23~24일 이틀 동안 '20XX. ○○ e페스티벌'대회를 개최한다.

④ 정보경진대회와 e스포츠대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도내 학생 79명, 지도교사 49명 등이 참석하며, ○○○에서 진행된다.

⑤ '20XX. ○○ e페스티벌'대회는 정보경진대회에 스마트 검색을 포함한 7개 영역, e스포츠대회에 펜타스툼을 포함한 5개 영역을 ○○ 영역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수정 후



① 네 정보 역량을 보여줘!

② 23~24일 ○○○에서 20XX. ○○ 이(e)페스티벌 개최

○○○은 ○○ 학생의 정보화✓능력을 ③ 길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6월 23~24일 '20XX. ○○ 이(e)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한다.

④ 이번 대회는 ○○○에서 정보경진대회와 이(e)스포츠*대회로 진행된다. 도내 학생 79명, 지도교사 49명 등이 참석한다.

***이(e)스포츠: 일렉트로닉 스포츠(electronic sports)의 약자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게임물을 통해 기록이나 승부를 겨루는 경기.**

⑤ 정보경진대회는 스마트 검색을 포함한 7개 종목, 이(e)스포츠대회는 넷마블의 펜타스툼을 포함한 5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 영역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 ❶ 한글을 우선으로 쓰며 되도록 외국어를 쓰지 않는다.
- ❷ 부제는 제목을 구체화하거나 보충, 강조, 요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❸ ‘신장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세력이나 권리 따위가 늘어나다, 또는 늘어나게 하다’이다. 그러므로 능력을 기르다, 능력을 키우다, 능력을 발휘하다로 바꿔쓰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❹ 한글을 우선으로 쓰며 외국 글자는 괄호 안에만 쓴다. 예를 들어 PC ➡ 컴퓨터/피시(PC), LED ➡ 엘이디(LED)/발광 다이오드(LED) 등이다.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등은 각주(*)를 단다.
- ❺ 보도 자료는 적절한 길이의 문장, 적절한 양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 감수 예시(2)



❶ (제목) XX교육청, XXXXX 미래학교 대상교 선정

❷ (부제) 2023~2025년 75개교 99동 6800억 원 들여 새단장

XXXX교육청(교육감 XXX)은 2023~2025년 XXXXX 미래학교 대상✓학교를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XXXXX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❸ **경과한** 노후 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경남은 2025년까지 총 221동 건물에 약 1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 동의 의무화, 사립학교 개축 허용, 학교 주변 환경 변화 반영,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선정학교에 대하여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❹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XX교육청은 신청 학교 ^{107개 학교} ❺ 107개교 141동 37만 1,000㎡를 심사, 이 중 ^{75개 학교} ❻ 75개교 99동 27만 4,000㎡를 최종 대상✓학교로 선정했다. 선정 절차는 교육지원청 정량✓평가, 도교육청 정성✓평가와 선정위원회 검토, 학부모 동의, 교육부 검토위원회를 거쳤다. 기존 과다 투자 등 부적합 학교는 제외했다. 부족한 물량은 2024년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2023년 ^{30개 학교} ❶ 30개교 41동, 2024년 ^{28개 학교} ❷ 28개교 36동, 2025년 ^{17개 학교} ❸ 17개교 22동으로 ❹ **총 공사비**는 6,820여억 원이다.

개축 대상✓학교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 짓게 되며, / 리모델링 대상✓학교는 기존 건물 철거 없이 보수하거나 일부를 증축하게 된다.

(중략)

- ①~② (제목) XX교육청, XXXXX 미래학교 대상교 선정 → XX교육청 'XXXXX 미래학교' 75개 학교 선정
(부제) 2023~2025년 75개교 99동 6800억 원 들어 새단장 → 2023~2025년 6820여억 원 들어 새 단장

제목과 부제는 보도 자료 내용을 보지 않고서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료해야 한다.

- ③ 40년 이상 경과한 → 40년 이상 된

같은 뜻이라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선택한다.

- ④ 향후 → 앞으로

어려운 한자어나 한문 투는 쉬운 말로 바꾸어 쓴다.

- ⑤~⑨ 107개교 → 107개 학교, 75개교 → 75개 학교, 30개교 → 30개 학교, 28개교 → 28개 학교, 17개교 → 17개 학교

학교를 의미하는 '교'가 명사나 접미사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 ⑩ 총 공사비 → 총공사비

'총-'은 일부 명사 앞에서 '전체를 아우르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인다. 예를 들어 총감독, 총결산, 총공격 등이다. 단, '총'이 수사(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 앞에 쓰여 '모두 합하여 몇임'을 나타낼 때는 관형사이므로 뒷말과 띄어 쓴다. 예를 들어 총 30건, 총 16면, 총 100명 등이다.

공고문

- 널리 알려지는 의도로 쓴 글. 특정한 사안이나 정책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 감수 예시(1)

① 공유재산 폐)OO초등학교 OO분교 매각 계획 공고

알림

1. 매각 대상 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토지(㎡)	건물(㎡)	공작물	②입목죽
폐)OO초등학교 OO분교	경상남도 OO군 OO면 OO리 12-3	1,234	123.45 (교사 외 0동)	0식	OO주

2. 매각사유

가. ③ 19xx년 폐교된 학교로 재개교 가능성이 희박하며, OO읍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폐지학교 관리 및 자체 활용 등 타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이 적음.

나. ④ 20xx년 0월 0일 OO군에서 OO농장 조성 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수 요청하여 제OO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0차 본회의에서 폐)OO초등학교 OO분교 매각(안)이 20xx년 0월 00일자로 의결되었기에 매각하고자 함.

3. 공고목적: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4. 매각예정 시기: 매각계획 공고 기간 이후

5. 공고기간: 20xx. 0. 0.(목) ~ 20xx. 0. 0.(월) ⑤[33일 간]

6. 매각가격의 결정: 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 금액을 결정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음.

7. 매각용도: 00군청의 00농장 조성 사업 부지

8.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의계약

9. 기타사항

가. ⑦ 본 매각광고 기간 중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매각여부 및 매각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⑧ 공유재산의 지적은 공부 및 지적상 표시된 면적으로 하며 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하고 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여부,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0. 의견서 제출

가. 위의 매각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불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00 교육지원청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⑨ 공고기간 내의 도착 우편물에 한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주소: 우)00000 경상남도 00군 00읍 00로 1234

00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재정담당 폐교관리 업무담당자

다. 연락처: ☎ 055-123-456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알립니다.

20xx년 0월 0일

경상남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① 공유재산 폐)00초등학교 00분교 매각 계획 공고

➡ 공유 재산 00초등학교 00분교 폐교 부지 매각 계획 알림

‘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쓰이지 못한다. 또한 매각의 대상은 학교의 ‘부지’이므로 ‘폐)’를 삭제하고 ‘폐교 부지’를 추가한다. 공고문의 특성상 제목에 ‘공고’라는 표현이 관례적으로 쓰이고 있으나, ‘알림’으로 다듬어 쓰면 이해하기 더 쉽다.

② 입목죽 ➡ 선나무와 대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다듬은 말에 따라 ‘입목죽’을 ‘선나무와 대’로 수정한다.

③ 19xx년 폐교된 학교로 재개교 가능성이 희박하며, 00읍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폐지학교 관리 및 자체 활용 등 타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이 적음.

➡ 19xx에 폐교된 00초등학교 00분교는 다시 운영될 가능성이 적고 00읍에서 멀어 관리가 어려우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③의 문장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며 ‘재개교’, ‘원거리’, ‘타용도’ 등의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쓰였다. 또한 ‘폐지학교 관리 및 자체 활용 등 타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이 적음’과 같은 문장은 명사문으로서 문장 성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폐지 학교 관리’에 필요한 서술어가 생략되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관리’와 호응하는 ‘어렵다’를 추가하고 어미나 조사 등을 살려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④ 20xx년 0월 0일 OO군에서 OO농장 조성 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수 요청하여 제0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0차 본회의에서 폐)OO초등학교 OO분교 매각(안)이 20xx년 0월 00일자로 의결되었기에 매각하고자 함.

➔ 20XX년 0월 0일에 OO군에서 폐교 부지를 OO농장 조성 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제0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0차 본회의에서 OO초등학교 OO분교 매각(안)이 20XX년 0월 00일자로 의결되었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④의 ‘매수 요청하여’와 같이 명사만 나열된 문장 대신 적절한 조사를 사용하여 ‘매수를 요청하여’라고 쓰면 더욱 우리말답고 쉬운 표현이 된다. 또한 행위의 주체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 매수를 요청한 주체와 매각을 결정한 주체가 모두 ‘OO군’인 것처럼 보인다.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간결하게 쓰고 각 행위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혀 써야 한다.

⑤ [33일 간] → [33일간]

기간을 뜻하는 접미사 ‘간’은 앞말과 붙여 쓴다.

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 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 금액을 결정하며, 감정 평가나 분할 측량에 드는 비용을 포함할 수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 평가 법인에서 평가한 감정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 금액을 결정하며, 감정 평가나 분할 측량에 드는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⑥의 문장에서 ‘2인 이상의 감정 평가 법인’은 평가를 하는 주체이며 ‘의뢰’의 주체는 공고문을 작성한

기관이다. 그러나 원 문장에서는 ‘의뢰’와 ‘평가’의 주체가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행위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감정 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 평가액’ 또는 ‘감정 평가 법인에서 평가한 감정 평가액’과 같이 고치는 것이 좋다.

- ⑦ 본 매각공고 기간 중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매각여부 및 매각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매각 공고 기간 중에 의견을 모아들이는 결과에 따라 매각 여부와 매각 일정 등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이) 매각 공고 기간 중에 모아 들인 의견에 따라 매각 여부와 매각 일정 등이 바뀔 수 있습니다.

⑦ 의 문장에 쓰인 한자어 ‘본’을 ‘이’로, ‘수렴’과 ‘변동’을 ‘모으다’, ‘바뀌다’로 다듬으면 내용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명사인 한자어가 우리말 동사로 바뀌게 되므로 더 자연스럽게 우리말다운 문장이 된다.

- ⑧ 공유재산의 지적은 공부 및 지적상 표시된 면적으로 하며 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하고 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여부,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공유 재산의 넓이는 공용 장부 및 지적에 표시된 면적으로 하며 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합니다. 공용 장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여부, 행정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 정보가 하나의 문장에 함께 포함되어 교육지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문장을 둘로 나누어 고친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 낯선 줄임말인 ‘공부’를 풀어 썼으며, ‘지적’, ‘일체’ 등의 한자어를 더 쉬운 말로 다듬어 썼다. 특히 이 문장에서는 두 가지의 ‘지적’이 쓰였는데 각각 ‘땅의 넓이’와 ‘토지에 대한 기록’을 의미한다. 이때 ‘공유재산의 지적’을 ‘공유 재산의 넓이’로 고치면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후자의 ‘지적’과 구분하기 쉬워진다.

- ⑨ 공고기간 내의 도착 우편물에 한함

➔ 알림 기간 내에 도착한 우편물에 한정합니다.

‘도착 우편물’은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도착하다’와 같은 동사가 ‘우편물’ 등의 명사를 꾸밀 때에는 ‘도착한 사람’, ‘도착한 택배’ 등과 같이 ‘도착한 우편물’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에 한함’은 한문 투 표현이므로 문장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고 명사형으로 문장을 끝내면 불친절한 느낌이 날 수 있으므로 ‘-에 한정합니다’와 같이 고치는 것이 좋다.

● 감수 예시(2)

20xx년도 경상남도OO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학교급식종사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 공고

- ① 20XX년도 경상남도OO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학교급식종사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XX년 0월 00일

경상남도OO교육지원청교육장

1 최종합격자 명단(35명)

조리실무사(35명)					
응시 번호	3	6	12	18	19
	22	25	27	29	32
	35	43	44	49	50
	53	54	55	59	63
	70	73	74	76	77
	78	79	83	89	93
	102	103	105	112	125

2 최종합격자 등록 안내

가. 일시 : 20XX.0.00.(목) 10:00(시간내 반드시 입실)

나. 장소 : 경상남도OO교육지원청 0층 소회의실

다. 대상 : 최종합격자 35명

② 라. 내용

1) 채용 결정사유 조회 동의서 제출(등록장소에 비치)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제출

③ 계약서 작성시 해당 학교 제출

④ 채용신체검사 유효기간은 1년

[1년 이내 발급(재발급)된 채용신체검사서는 유효]

⑤ 5개월 이내 발급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유효

⑥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및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은 시일이 소요(약 5일)되므로 최종합격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라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⑥ 바. 주의사항

- ◆ ⑦ 등록시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 ⑧ 최종합격자 알림 후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 및 자격 여부 조회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합니다.
- ◆ ⑨ 최종합격이 결정된 사람이라도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사람은 합격을 취소합니다.
- ◆ ⑩ 각급 학교에 배치된 이후라도 채용시험 시행 공고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관계 법규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채용을 취소합니다.
- ◆ ⑪ 최종합격자는 최초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의 문의 사항 : 0000과 00담당 ☎ 055) 123-5678~9

- ① 2018년도 경상남도00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학교급식종사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남도00교육지원청에서 20xx년도 교육공무직원(학교 급식 종사자) 채용 시험의 최종 합격자 및 등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공고문은 읽기 전부터 알림의 주체(기관)를 알 수 있어 이와 같이 쓰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례에 맞다. 그러나 공고문을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인 만큼 주어를 살려 쓰면 알림의 주체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와 함께 ‘발표 및 등록’은 ‘알리다’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최종합격자 발표’가 아닌 ‘최종 합격자’, ‘등록’이 아닌 ‘등록 방법’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② 라. 내용

- 1) 채용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제출(등록장소에 비치)
-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제출

➔ 라. 제출 서류 / 필요 서류

- 1) 채용 결격 사유 조회 동의서(등록 장소에 갖추어 둬)
-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건강 진단 결과서(보건증)

공고문 ‘라’ 항의 제목은 그저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최종 합격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보여 준다. 따라서 ‘라’ 항의 제목을 ‘제출 서류’ 또는 ‘필요 서류’로 고친다. 이처럼 항목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쓰면 글을 읽는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③ 계약서 작성시 해당 학교 제출

➔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학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한문 투 표현 ‘시’는 ‘~할 때’로 다듬고, 적절한 조사와 어미를 사용하면 우리말답고 쉬운 문장이 된다.

이와 더불어 문장의 종결 어미를 ‘하십시오체’로 고치면 친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④ - 채용신체검사 유효기간은 1년

[1년 이내 발급(재발급)된 채용신체검사서는 유효]

- 5개월 이내 발급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유효

➔ - **채용 신체검사서는 1년 이내에 발급(재발급)된 것까지, 건강 진단 결과서(보건증)은 5개월 이내 발급된 것까지 유효합니다.**

④ 에서 제시한 ‘채용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정보와 ‘1년 이내 발급(재발급)된 것은 유효’하다는 정보는 같은 의미이다. 또한 ‘채용신체검사’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대해 비슷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만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 배열이 체계적이지 않으면 글을 읽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정보를 배열하는 형식을 통일하는 것이 좋다.

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및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은 시일이 소요(약 5일)되므로 최종합격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요함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및 건강 진단 결과서(보건증)는 발급받는 데에 시간(약 5일)이 걸리므로 최종 합격자는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고문 내에는 ‘-(스)입니다’, 명사형 어미 ‘-(으)ㅁ’, 명사 등 다양한 종결 어미가 사용되어 있다. 이는 문서 형식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하나의 종결 어미로 통일하는 게 좋으며 경어체인 ‘-(스)입니다’를 쓰면 더 친절한 공공언어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⑥ 바. 주의사항 내 글머리 기호(◆) → 1), 2), 3) ...

가장 큰 장은 ‘1, 2’로, 다음 소절은 ‘가, 나, 다’로 제시되어 있으며 그 하위로는 ‘1), 2)’와 ‘-’가 순서대로 나타난다. 그런데 ‘바’ 항목의 경우 다른 항목과 다르게 다이아몬드 기호(◆)를 사용하여 형식의 통일성이 어긋난다. 이를 다른 항목들과 동일하게 수정해야 한다.

⑦ 등록시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등록 시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의 문장에서 ‘-나 자’는 권위적인 표현이므로 ‘사람’으로 다듬었으며, ‘아니하는’은 일상 언어 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본말이므로 ‘않는’으로 다듬어 친근한 문장이 되도록 한다. 또한 ‘간주 처리합니다’에서 ‘처리하다’는 ‘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굳더더기 표현으로 보아 ‘간주하다’로 다듬어 간결한 문장이 되도록 한다.

- ⑧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 및 자격 여부 조회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합니다.

➔ **최종 합격자 알림 후 합격자가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명되거나 채용 자격 여부를 조회 하여 거짓 내용이 확인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이 문장은 합격을 취소당하게 될 상황 두 가지를 ‘사람’과 ‘경우’로 다르게 표현하여 ‘및’으로 연결하는 것이 어색해 보인다.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명되다’와 ‘거짓 내용이 확인되다’를 ‘거나’로 연결 하여 합격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함께 ‘자격 여부 조회 결과’, ‘합격 취소 처리합니다’ 등과 같은 명사 나열문은 적절한 조사와 어미를 넣어 우리말다운 문장이 되도록 하였다.

- ⑨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 합격한 사람이라도 채용 신체검사의 통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이 문장에 쓰인 ‘-나 자’는 권위적인 표현이므로 ‘사람’으로 다듬으면 더욱 친근한 문장이 된다. 또한 ‘채용 신체검사’는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는 검사가 아니므로 ‘통과 기준’을 넣어 ‘채용 신체검사의 통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으로 수정한다.

- ⑩ 각급 학교에 배치된 이후라도 채용시험 시행 공고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관계 법규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 **각급 학교에 배치된 이후라도 채용 시험을 시행할 때 알린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관계 법규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채용을 취소합니다.**

⑩의 문장에 쓰인 ‘채용시험 시행 공고된 결격사유’는 명사만 나열되어 있어 각 명사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채용 시험을 시행할 때 알린 결격 사유’와 같이 적절한 조사나 어미를 살려 쓰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

- ⑪ 최종합격자는 최초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첫 근무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두는 것은 최종 합격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결정이므로 ‘최종 합격자의 첫 근무일로부터’로 고친다. 그리고 ‘최초’와 ‘개시’ 등의 불필요한 한자어는 ‘첫’과 같은 쉬운 말로 다듬어 쓸 수 있다.



5

공공언어 돌보기

- 일본어 투 용어
- 번역 투 표현
- 한문 투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5 공공언어 돋보기

일본어 투 용어

- 우리글과 우리말은 개화기(1876년~1910년), 식민지 시대(1910~1945년)에 일본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다. 2022년 현재에도 일본어 투 용어는 일상 언어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어 투 용어인 줄 모르고 사용하다가 뒤늦게 아는 경우도 있다.
- 국립국어원이 2005년에 발간한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에 따르면 일본어 투 용어는 순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발음의 서구 외래어, 일본식 영어, 혼합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순 일본어(40.5%)와 일본식 한자어(37.2%)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 일본식 한자어의 경우 일본어에서만 통용되는 용법으로 쓰여서 우리의 일반적인 한자 지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식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된 일본어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음독해서 사용하는 단어를 뜻하며 일본어 음차어는 일본어 소리를 빌린 단어다.

● 일본식 한자어(20개)

일본어 투 용어	권장 표현	일본어 투 용어	권장 표현
망년회	송년회	거래선	거래처
견습	수습	종지부	마침표
모포	담요	대절	전세
고수부지	둔치	도합	합계
구좌	계좌	보합세	주춤세
노견	갯길	불입	납입
가불	선지급	고참	선임
가처분	임시 처분	다반사	예삿일
마대	포대/자루	수취인	받는 이
익일	다음 날	잔고	잔액

〈출처: 국립국어원의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50개’〉

● 일본어 음차어(30개)

일본어 투 용어	권장 표현	일본어 투 용어	권장 표현
모찌	찹쌀떡	쓰키다시	결들이찬
유도리	윙통성	아나고	붕장어
나가리	무산	가라	가짜
나와바리	구역	간지나다	멋지다
단도리	단속/채비	무데뽀	막무가내
땡땡이	물방울	이빠이	많이/가득
만땅	가득 (차다/채우다)	곤조	고집/근성
쇼부	결판	기스	흠/흠집
와사비	고추냉이	분빠이하다	나누다/각자내기하다
찌라시	전단지/광고지	사시미	생선회
가오	체면/무게	와꾸	틀
쿠사리	핀잔	지리	맑은탕
노가다	막노동/막일	뽀록나다	들통나다
대빵	대장	비까번쩍하다	번쩍번쩍하다
나시	민소매	뽕사리	실수/음이탈/헛발질

〈출처: 국립국어원의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50개’〉

- 경남교육청은 지난 2020년 『학교 내 일본어식 용어 이렇게 바뀌요.』를 발간했다. 이 책은 일본어식 용어 333개를 순화 대상 용어로 삼았다. 내용은 학교생활 속 일본어식 용어, 행정 업무 속 일본어식 용어, 일상생활 속 일본어식 용어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순화어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 자주 쓰는 학교생활 속 일본어식 용어와 행정 업무 속 일본어식 용어를 다듬은 말로 소개한다.

번호	일본어 투 용어	다듬은 말	일본어 투 용어	다듬은 말
1	가감	더하고 빼기	빙정	얼음 알갱이
2	가감승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정회	평가회
3	간석지	개펄	삽화	결 그림
4	개간	일굴	색인	찾아보기
5	개선	누우침	소수	씨수
6	개양	달, 올림	수학여행	문화체험여행
7	겐토	가늌, 어림짐작	식염수	소금물
8	결석계	결석 신고서	응결	응김
9	경례	인사	이지메	집단 괴롭힘
10	경어	높임말, 존댓말	잔반	음식 찌꺼기, 버리는 음식
11	계주	이어달리기	전승	전하여 이어감(음)
12	기포	거품	절취선	자름선
13	담임 교사	학급 교사	제본	책 매기, 제책
14	두발	머리모양	조기	이른
15	명찰	이름표	풍향	바람 방향
16	미싱	재봉틀	하구언	강어귀 둑
17	별책	딸림책	혹성	행성
18	빙점	어는점	훈화	덕담, 도움 말씀
19	결로	이슬 맺힘	수당	덤샷, 일샷
20	고지	알림	수령	받음
21	공란	빈칸	수리	받아들임
22	공시	알림	수속	절차, 순서
23	공제	땜, 뺌	수순	차례, 순서
24	납기일	내는 날	수취인	받는 이, 받는 사람
25	도합	모두, 합계	시말서	경위서
26	말소	지움, 지워 없앰	양식	서식
27	매	장	예시	보기
28	면적	넓이	유휴지	노는 땅
29	멸실	없어짐	음용수	마시는 물
30	미지불	(값을) 치르지 않음, 미지급	일부인	날짜 도장
31	세대	가구, 집	조달하다	대어 주다
32	송달	보냄, 띄움	회람	돌려 보기
33	간담회	다모임	흑판	칠판

〈출처: 「학교 내 일본어식 용어 이렇게 바뀌요」〉

번역 투 표현

영어

1) ~을/를 가지다(have) → 열다/있다/하다

예 ○○중학교는 14일 오후 ○○○ 경상남도교육감, ○○○ 진주부시장, 체육계 및 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펜싱장 개관식을 가졌다.

→ 개관식을 열었다.

예 매월 1회 정기 모임에서는 독서 토론 및 에세이를 써보는 연습을 하며, 하반기에는 청소년의 진로나 고민을 다루는 특강을 들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 특강을 진행한다.

2) ~로부터(from) → 에게/와(과)/에서

예 경상남도교육청은 1일 ○○은행 경남영업본부로부터 어린이 교양 월간지 800부의 연간 정기구독권 (4천만 원 상당)을 기증받았다.

→ 경상남도교육청은 1일 ○○은행 경남영업본부에서 어린이 교양 월간지 800부의 연간 정기구독권 (4천만 원 상당)을 기증받았다.

예 ○○○교수로부터 아토피·천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 ○○○교수가 아토피·천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강의했다.

3) ~을 통해(through) → (으)로/에서.../터/거쳐/~속에서/~으로써/

‘숨이 통하다, 문맥이 통하다, 그 사람에게 그런 식은 안 통한다, 나는 학교에서 독서가로 통한다, 이 방은 옆방과 통한다,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가다, 청년기를 통해 고난을 배웠다’처럼 ‘통하다’가 들어맞는 상황이면 괜찮지만 딱 들어맞는 상황이 아닌데 ‘~을 통해’를 쓰는 때가 많다.

예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 ON누리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 ON누리 사이트’ 누리집에서 활동

예 접수 후 이메일을 통해 확인 메시지를 보내드림

→ 접수 후 이메일(전자우편)로 확인 메시지를 보내드림

4) ~에 대해(about) → 맞선/향한/다룬/위한/쓸 필요가 없으면 뺀다

예 이날 어울림 행사에는 경남교육청 대입정보센터 ○○○장학사가 강사로 나와 ‘변화하는 대입 전형의 이해’에 대해 특강한다.

→ 이날 어울림 행사에는 경남교육청 대입정보센터 ○○○장학사가 강사로 나와 ‘변화하는 대입 전형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한다.

예 서당 관계자에 대한 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연 2회 이상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서당 관계자에게 폭력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연 2회 이상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일본어

1) ~의(가능하면 생략하는 게 좋다)

일본어에 관형격조사 ‘의(노)’가 우리말의 ‘의’로 번역되어 ‘내용, 상태, 성질의 한정’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³⁾

예 공모 주제: 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가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인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의 방향과
지향점을 잘 담아내는 브랜드 네이밍

→ 공모 주제: 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가 협업해 추진 중인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 방향과
지향점을 잘 담아내는 상표 이름 짓기

예 교육감이 학부모와의 대화를 한다.

→ 교육감이 학부모와 대화한다.

2) ~의 경우(에는) → ~하면/~때/(쓸 필요가 없으면 뺀다)

예 일반 구분 모집의 경우 △중등일반 교과교사 241명 선발에 2,662명(11.05:1) (중략) △영양교사 54명 선발에
199명(3.69:1)이 지원했다.

→ 일반 구분 모집에 △중등일반 교과교사 241명 선발에 2,662명(11.05:1) (중략) △영양교사 54명 선발에
199명(3.69:1)이 지원했다.

예 경남의 경우 교과별 성취도 학생 비율 변화 정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남은
교과별 성취도 학생 비율 변화 정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을/를 요하는 → 해야 하다/필요하다

예 난치병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이며, 질병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이다.

→ 난치병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 학교 학생이며, 질병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와 요양을 해야 하는 질환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 질환이다.

4) 에 있어서(쓸 필요가 없으면 뺀다)

예 교육인권경영센터 홈페이지의 인권교육-교육자료 메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연중 인권교육에
활용 가능하다.

→ 교육인권경영센터 누리집의 인권교육-교육자료에서 내려받아 연중 인권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예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주의점

→ 일을 추진할 때 주의할 점/ 추진하면서 주의할 점/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3) 이하자, ‘한국 신문기사에 나타난 일본어투 표현고찰’, 『일본어교육』 (2005) 31권 99쪽~116쪽



한문 투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 **및**⁴⁾

및은 한자 미칠급(及)의 의미를 따서 만든 글자이다. 주로 ‘와/과, 그리고’로 바꿔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과 및 포도’라고 하면 사과와(and) 포도라는 의미며 사과 또는(or) 포도라는 의미는 아니다.

예 다만, 코로나19 상황 및 도서관 사정에 따라 장소 및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독자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및이 ‘그리고’의 의미인지 ‘또는’의 의미인지 헷갈린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다)

➡ 다만, 코로나19 상황과 도서관 사정에 따라 장소와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 다만, 코로나19 상황 또는 도서관 사정에 따라 장소나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예 문학에는 시·소설 및 희곡 등이 있다.

➡ 문학에는 시와 소설, 희곡 등이 있다.

○ **~로 인해 ➡ ~로 말미암아/~로써/~탓에/~덕분에**

인하다는 한자 인할 인(因)에다 ‘~하다’를 붙여 만든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인하다’는 ‘어떤 사실로 말미암다’ 또 ‘당연한 결과로 어떤 일에 이어지거나 뒤를 따르다’를 의미한다. 최인호 전 한겨레말글연구소장은 “예전에도 ‘인하다’가 있었지만 쓰임이 달랐고, 요즘 것은 20세기 들어 일본말을 옮겨서 쓰고 있는 말로 본다. 법률문을 비롯해 일반에서도 두루 쓰고 있고, 영어(by+사물)를 번역하면서도 이 말을 대어 쓰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 격리통지를 받은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고, 입원(치료)중인 확진자수험생은 병원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 코로나19로 격리통지를 받은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고, 입원(치료) 중인 확진자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예 재정과 계약 담당, 교육연구정보원 보안관제 담당은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근무가 절실히 요구됨에도 높은 업무 긴장도와 격무로 인해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 재정과 계약 담당, 교육연구정보원 보안관제 담당은 전문성과 장기 근무가 요구되는 동시에 높은 업무 긴장도와 격무로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 격무는 고된 일로 다듬어서 쓰는 게 좋다.

4) “한문 투에 집착한 사람들이 억지로 ‘및’이라고 해석해서 보급한 결과 공문서와 신문 기사, 논설, 교과서 문장에 끼여 들어 언어 생활의 이상(理想)인 언론 일치를 가로막는다.” 『이수열 선생님의 우리말 바로 쓰기』 284쪽

6

부록

- 필수 개선 행정 용어 100개
- 제1회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행정 용어 심의 결과
- 도움받을 곳

6 부록

필수 개선 행정 용어 100개

국립국어원은 2018년에 중앙행정기관의 보도 자료, 업무 보고 자료 등에 많이 나오는 외국어나 한자어 가운데 꼭 다듬어 써야 할 행정 용어 100개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되더라도 그 빈도가 떨어지는 한자어, 로마자 약어 표기로 전달력이 떨어지는 외국어, 음차 표기로 소통성이 떨어지는 외국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개선 대상 외래어, 외국어

중앙행정기관 보도 자료 상시 점검 결과,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출현한 외래어, 외국어 중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쉬운 대체어가 있어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외래어.

외래어/외국어	다듬은 말	외래어/외국어	다듬은 말
거버넌스	민관 협력, 협치, 관리, 정책	오피니언 리더	여론 주도자, 여론 주도층
규제 프리존	규제 자유 구역, 규제 (대폭) 완화 지역, 무규제 지역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즉각 처벌 제도, 즉시 퇴출제
규제 샌드박스	규제 유예 (제도)	이니셔티브	주도권, 선제권, 구상, 발의, 발의권
니즈	필요, 수요, 바람	제로화	원점화, 없애기, 뿌리 뽑기
데모데이	시연회, 시연일, 시범 행사(일), 사전 행사(일)	쿼터	한도량, 할당량
드론	무인기	클러스터	산학 협력 지구, 연합 지구, 협력 지구
라운드 테이블	원탁회의	kickoff 회의	첫 회의, 첫 기획 회의
롤모델	본보기, 본보기상, 모범	태스크포스(T/F, TF)/태스크포스팀	특별팀, 전담팀, (특별) 전담 조직
리스크	위험, 손실 우려, 손해 우려	테스트 베드	시험장, 시험대, 시험무대, 가늠터
마스터 플랜	종합 계획, 기본 계획, 기본 설계	투트랙	양면, 두 갈래

외래어/외국어	다듬은 말	외래어/외국어	다듬은 말
매뉴얼	지침, 설명서, 안내서	팸투어	홍보 여행, 초청 홍보 여행, 사전 답사 여행
매칭	연계, 연결, 대응	(...)풀	(...)후보군, (...)군, (...)명단
메가트렌드	대세, 거대 물결	허브	중심, 중심지
모멘텀	(전환) 국면, (전환) 계기, 동인(動因)	AI	① 인공 지능 ②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바우처	이용권	B2B/G2G	기업 간 (거래)/정부 간 (거래)
브라운백 미팅, 브라운백 세미나	도시락 강연회, 도시락 회의, 도시락 토론회	BI	브랜드 정체성
브로슈어	안내서, 소책자	G20	주요 20개국
세션	분과, 시간	ICT	정보 통신 기술
스크린도어	안전문	IoT	사물 인터넷
스타트업	창업 초기 기업, 새싹 기업	IR	기업 설명회, 기업 상담회
싱크 탱크	참모진, 참모 집단, 두뇌 집단	IT	정보 기술
아웃리치	현장 지원 활동, 현장 원조 활동, 거리 상담	MOU	업무 협약, 양해 각서
아카이브	자료 보관소, 자료 저장소, 자료 전산화, 기록 보관	O2O	온오프라인 연계, 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 온오프라인 연계 사업
액션 플랜	실행 계획	ODA	공적 개발 원조, 정부 개발 원조
어젠다	의제	R&D	연구 개발

〈출처: 국립국어원〉

● 개선 대상 한자어

공문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로서 의미 파악이 어려운 용어,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1800자) 범위 외의 한자로 구성된 어려운 용어, 쉬운 대체어가 있어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한자어.

한자어	다듬은 말	한자어	다듬은 말
가료	치료	수범 사례	모범 사례, 잘된 사례
가용하다, 가용한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	수의시담	가격 협의
개산/개산하다/개산급	어림 계산, 대략 계산/ 어림잡아 계산하다, 대략 계산하다/ 어림 지급, 대략 계산 지급	시건장치	잠금장치
거양/거양하다	올림, (드)높임, 둠/올리다, (드)높이다, 들다	양도양수	주고받음, 넘겨주고 넘겨받음
계첩, 계첩/ 계첩하다, 계첩하다	게시, 내붙임, 내붙/ 게시하다, 내붙이다, 내걸다	(아스팔트 등) 양생	(아스팔트 등) 굳히기
견양	보기, 본, 본보기, 서식	여입 결의	회수 결정
계류/계류되다/ 계류 중	묵임/묵여 있다, 묵이다/검토 중	예가	예정 가격
계리	회계처리	예산 지변 과목	예산 과목
금명간	곧, 오늘내일, 오늘내일 사이	예찰	미리 살피기
금번	이번	이격	벌어짐, 벌림, 떨어짐
금회	이번	익일/익월/익년	다음 날/다음 달/다음 해
내구 연한	사용 연한, 사용 가능 기간, 사용 가능 헛수	일부인	날짜 도장
내용 연수	사용 연한, 사용 가능 기간, 사용 가능 헛수	임석	(현장) 참석

한자어	다듬은 말	한자어	다듬은 말
단차	고저차, 높이 차이, 높낮이 (차이)	자동제세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
당해	그, 해당	적기	알맞은 시기, 제때, 제철
동년/동월/동일	같은 해/같은 달/같은 날	적의 조치/ 적의 조치하기 바람	적절한 조치/ 적절히 조치하기 바람
동법/동조/동향	같은 법/같은 조/같은 항	지득/지득하다	앎, 알게 됨/알다, 알게 되다
물품 수불 대장	물품 출납 장부, 물품 출납 대장	차년도	다음 해, 다음 연도
별건	다른 건, 딴 건	(기부 등을) 채납/ 채납하다	(기부 등을) 받음, 받기/ 받다, 받아들이다
부락	마을	첨두시	가장 붐빌 때, 수요가 최고일 때
불상의, 불상인	알 수 없는, 자세하지 않은	초도순시	첫 시찰, 첫 둘러보기
불시에	갑자기, 예고 없이	(경보, 사이렌 등을) 취명/취명하다	(경보, 사이렌 등을) 울림/울리다
불입/불입하다	납입, 납부, 냄/ 납입하다, 납부하다, 내다	(공무원증, 출입증 등을) 패용/패용하다	(공무원증, 출입증 등을) 달기/달다
불출/불출하다	내줌, 공급, 지급/ 내주다, 공급하다, 지급하다	하구언	하굿둑
성료	성공적으로 마침, 성공적으로 끝 남, 성대하게 마침	행선지	목적지

〈출처: 국립국어원〉



제1회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행정 용어 심의 결과

-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5조~제11조에 따라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총 9명, 외부 위원 6명·내부 위원 3명)를 구성해 1년에 두 차례 위원회를 개최한다.
-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는 2022년 4월 회의를 열어 행정 용어를 심의했고 결과는 아래와 같다.

번호	바뀌야 할 말	다듬은 말(개선안)	개선 사유
1	만전(萬全)을 기(期)하다	• 빈틈없이 하다/빈틈없이 살펴보다 • 최선을 다하다 • 더할 나위 없이 하다 • 허술함이 없도록 하다 예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빈틈없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술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일본어 투 용어, 어렵고 상투적인 한자 표현을 피하고 쉬운 표현을 쓰도록 함
2	간주(看做)하다	• 여기다/~/로 보다/~/로 치다	일본어 투 용어
3	아카이브	• 아카이브를 써야 한다면 쓰되 적절하게 한글을 사용 예 경남교육역사 아카이브 구축 → 경남교육역사 디지털 자료 구축 • 국립국어원은 자료 보관소/자료 저장소/기록 보관/자료 전산화로 순화함	영어
4	컨설팅	• 조언/상담/자문/도움/지원 (상황에 맞게 사용)	영어
5	엘로 카펫	• 순화어를 제시하지 못함.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라고 순화어로 제시)	영어

번호	바꿔야 할 말	다듬은 말(개선안)	개선 사유
6	문서수발실	- 문서수발실이 우편물을 주고받는 곳이니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들은 ‘우편실’로 쓸 것을 추천함 - 하지만 위원들은 경남교육청 교직원의 의견을 모아 더 좋은 다듬은 말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함	수발의 첫째 의미는 신변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시중을 들, 둘째 의미는 받음과 보냄 등이 있음. 수발이라고 하면 첫째 의미가 먼저 떠올라 사람들에게 혼란을 줌
7	자매결연 / 자매학교	- 다른 지자체의 경우 상호 결연/상호 협약 등을 권고함 - 위원들은 자매결연/자매학교를 대체할만한 예를 들어 ‘오누이 학교’, ‘운김 학교’ 등 교직원의 생각을 모아서 대체어를 제시할 것을 권함	특정 성별의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성차별 용어
8	조리교(校)	조리 급식 학교	한글 맞춤법 오류 (‘교’는 문맥상 학교를 의미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학교를 의미하는 ‘교’가 명사나 접미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
9	조리실무사 등 직종명	모두 붙여서 쓸 것을 권함	띄어쓰기
10	인력풀	인력망/인력 모음	영어
11	미래교육 / 경남교육	경남교육청의 철학, 정책 방향을 담은 경남 교육일 경우에는 붙여 쓰고 경남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교육을 의미할 때는 띄어서 씀. 미래교육도 마찬가지임	띄어쓰기
12	메이커 교육	메이커 교육이라고 쓰되 각주(*)를 붙여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	영어
13	선도(先導) 모델	이끌 모델 (모델을 모형, 본보기 등으로 순화할 수 있으나 모델로 써도 무방함)	영어

도움받을 곳

◦ 사전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https://opendic.korean.go.kr>)

◦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어문규범(<https://kornorms.korean.go.kr/main/main.do>) 누리집

◦ 다듬은 말

- 국립국어원의 다듬은 말(<https://korean.go.kr/sunhwa>) 누리집

◦ 온라인가나다(<https://korean.go.kr/ganada>)

- 어문규범, 어법, 표준국어대사전 내용 등을 문의하는 곳이다.

◦ 카카오톡 우리말365

- 급하게 문의할 곳이 필요하면 카카오톡에서 ‘우리말365’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가나다보다 훨씬 더 답변 속도가 빠르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전 11시, 오후 1시~오후 5시로 상담 건수는 1인 1일 5회로 제한된다.

◦ 공공언어 개선(<https://publang.korean.go.kr>)

- 공공언어 감수, 정책 용어 상담, 공공용어 번역 등이 가능하다. 정책, 제도, 사업 이름은 한 번 정해지면 이후 수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발표 전에 국립국어원에 문의하거나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실 국어전문가와 상의하면 된다.

◦ 띄어쓰기

- 보도 자료 등 공문서를 쓰고 난 뒤 문장 띄어쓰기의 옳고 그름이 아리송하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기계도 실수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 1) 부산대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http://164.125.7.61/speller>)
- 2)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 3) 다음 맞춤법 검사기(https://dic.daum.net/grammar_checker.do)
- 4) 잡코리아 맞춤법 검사기(<https://www.jobkorea.co.kr/service/user/Tool/SpellCheck>)

참고 자료

○ 사전류

-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

○ 자료

- 국립국어원(2019), 『개정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0), 『공공언어 감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침서』,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2), 『바른 국어 생활』(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교재), 국립국어원.
-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2021), 『경상남도교육청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경상남도교육청.
- 이하자(2005), 『한국 신문기사에 나타난 일본어투 표현고찰』, 『일본어교육』 31권, 한국일본어교육학회, 99-116쪽.

○ 기사

- 김세중(2002. 7. 22.), ‘잘못된 영어식 로마자 적기’, 『한겨레』(<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9000000/2002/07/009000000200207222008388.html>).

○ 단행본

- 김덕현·강은주·백명기·변광기·서동래·우성준·이경선·정유철·구말숙·김주리(2020), 『학교 내 일본어식 용어 이렇게 바뀌요』, 경상남도교육청.
- 이수열(2014), 『이수열 선생님의 우리말 바로 쓰기』, 현암사.

경상남도교육청 공공언어 바로쓰기

■ 만든 사람들

기획·검토 신승욱 홍보담당관
이학수 공보담당 사무관

집필 김민지 국어전문가

발행일 2022년 10월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실

편집·인쇄 디자인톡

